

박석순 /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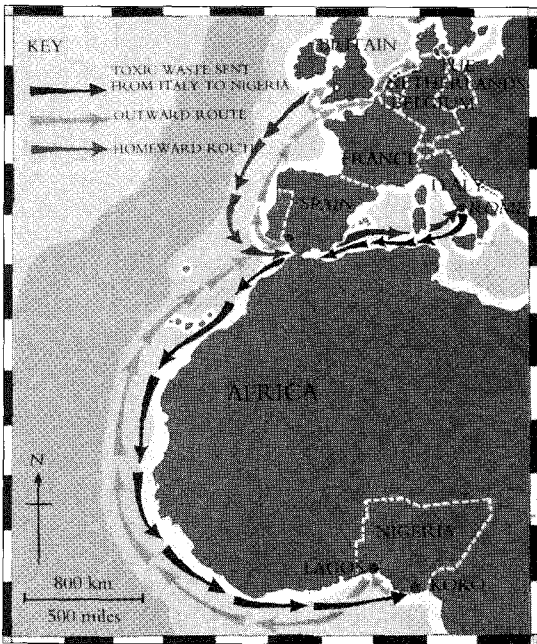
코코 투기 사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있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이탈리아인이 나이지리아인과 공모하여 1987년 8월부터 1988년 5월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이탈리아로부터 3,884만톤에 달하는 유해폐기물을 화학제품으로 위장 반입하여 나이지리아 벤넬주 코코항에 방치한 사건이 있었다.

반입된 유해폐기물은 민간이 운영하는 코코항의 한 보관장에 야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방치되고 있다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국제 문제로 되었다. 방치된 유해 폐기물로부터 나온 침출수로 인하여 식수가 오염되고 유독성 가스가 대기로 이동하여 코코지역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각종 질병이 나타나게 되었다.

피해의 원인이 타국의 산업쓰레기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자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탈리아의 비양심적인 행위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게 되었다. 나이지리아 정부의 강력한 대응 때문에 유해폐기물은 국외로 추방되었고 폐기물을 실은 선박은 1988년 7월부터 8월까지 바다 위를 떠돌게 되었다. 스페인에서 프랑스 그리고 벨기에, 네델란드, 독일, 그리고 영국 등으로 입항하려 하였으나 어느 국가도 입항을 허용하려 하지 않았다. 결국 이 폐기물은 국제 여론과 수차례에 걸친 나이지리아 정부의 외교 교섭에 힘입어 다시 이탈리아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나이지리아 정부도 오염된 곳을 정화하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1백만 달러 이상을 소모하였다.

당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하여 선진국의 유해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985년 한해 동안 유럽 국경을 이동한 유해 폐기물이 약 300만톤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도 많은 양의 산업쓰레기를 해외로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계몽하게 되었고 국토와 국민을 환경오염과 파괴로



▲ 이탈리아에서 반입된 유해폐기물이 나이지리아의 코코항 근처에 그대로 방치되었다. 이 유해폐기물로부터 나온 침출수로 인해 주민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하였고, 이 유해폐기물이 이탈리아로 되돌려지기 전에 Karin B호는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네델란드, 독일 그리고 영국으로부터도 입항이 거절되었다.

유해폐기물을 받아들이는 후진국에서는 법적규제 뿐만아니라 이것이 갖는 위험성에 관한 지식이나 관리 기술도 전무하였다. 따라서 유해폐기물이 갖는 위험성은 생산한 국가에서 보다 받아들이는 후진국에서 엄청나게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코코지역에서 사는 나이지리아인들은 유해폐기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 왔기 때문에 방치된 폐기물을 제거하는 일에 동원된 현지인들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제거작업을 하던 150여명의 인부들이 폐기물에서 유출된 유독성 화학물질로 인하여 구역질과 객혈 그리고 마비 증상을 나타내게 되었고 화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부디 보호하기 위하여 타국의 산업폐기물 수입을 삼가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선진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수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선진공업국에서는 유해폐기물 처리와 처분에 관한 법적 규제가 엄격한 반면 개발도상국은 법적제도가 극히 미약했기 때문에 선진국의 유해폐기물이 후진국으로 반입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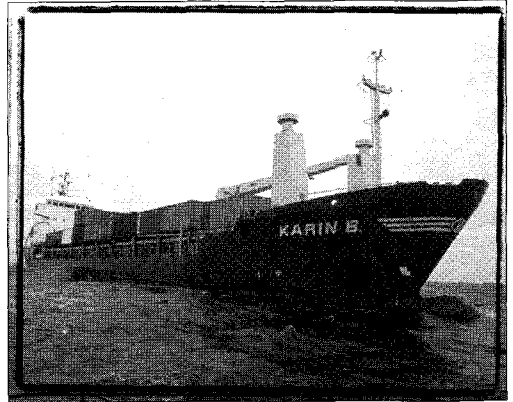
유해폐기물을 받아들이는 후진국에서는 법적규제 뿐만아니라 이것이 갖는 위험성에 관한 지식이나 관리 기술도 전무하였다. 따라서 유해폐기물이 갖는 위험성은 생산한 국가에서 보다 받아들이는 후진국에서 엄청나게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코코지역에서 사는 나이지리아인들은 유해폐기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 왔기 때문에 방치된 폐기물을 제거하는 일에 동원된 현지인들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제거작업을 하던 150여명의 인부들이 폐기물에서 유출된 유독성 화학물질로 인하여 구역질과 객혈 그리고 마비 증상을 나타내게 되었고 화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코코투기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처음으로 유해 폐기물이 국제 문제화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사건 발생 다음 해인 1989년 3월22일에는 스위스 바젤에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 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을 채택하게 되었다. '바젤협약'이라 불리는 이 국제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제 무역과 국경 투기 등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이 협약의 골격은 규제 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명시하고 수출입에 관한 제약 및 책무를 정하며 수입 및 수출국 통과국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 협약은 궁극적으로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국에서 발생한 유해폐기물은 자국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약이후 국제간의 유해폐기물 이동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국경의 감시가 소홀함을 틈타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이제 환경보호가 국경 방어의 새로운 항목이 된 것이다.

얼마전 국제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된 대만 핵 폐기물 북한 반입도 바젤 협약에 의한 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북한과 대만 어느 한 곳도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규제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



▲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서 수거된 Karin B 호의 유해폐기물은 그곳에 불법적으로 방치되었고 이는 지역주민들의 발병원인이 되었다.